

## 요나 1:17 – 2:10

17 주님께서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,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.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.

- 요나를 삼킨 것이 큰 ( )이다. 히브리어로, 고래가 아니라 아주 큰 ( )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. 요나를 이야기 할 때 무심코 고래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.
- “마련하여 두셨다가”: 미리 요나를 구하기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
-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요나: ( )께서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신 것과 비유된다. 마태 12:38-40, 16:4, 누가 11:29-32
- 요점: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,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삶으로 돌아온 요나.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, 요나를 용서하시고 구하여 주시고 있다.

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2 아뢰었다. "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,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.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,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. 3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,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,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,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. 4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'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,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 보겠습니다' 하였습니다. 5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,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,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. 6 나는 땅 속 멧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.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, 주 나의 하나님,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.

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(시).

- 2 절: 물속으로 빠져들 때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요나
- 3 절 – 6 절: 물위에서부터 (3 절) 물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가는 (4 절) 그리고 밑바닥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(5 절) 거의 익사하기 직전까지 가는 (6 절) 요나의 상황을 묘사한다.
- 2 절 처음의 “주님께서” 는 3 인칭인데 (he answered), 두번째로 나오는 “주님께서” 는 2 인칭 (you answered)이다. 고통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바뀌어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.
- ( ): 2 절에,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,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.
- 6 절의 빗장: 스올로 들어가는 문의 빗장을 의미. 거의 죽을 지경에 까지 다다른 요나를 나타냄.

- 3 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진 사람이 뱀사람이 아니라 ( ) 이라고 말한다. 이 모든 일들이 ( )의 간섭이심을 인정하는 대목이다
- 이 시의 2 절부터 6 절은, 다섯절로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, 이중 핵심이 되는 구절이 ( )이다.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서,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을 보여준다.

7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,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,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, 주님께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. 8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,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. 9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,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.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.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."

- 7 절 - 9 절: 물고기를 통해 자신을 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요나의 모습
- 9 절 초반부의 “그러나 나는 ~~” : ( )을 읽다보면 아주 익숙하게 등장하는,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부분이다. 예) 시편 13:5, 31:14, 59:16.
- 7 절에서 “주님을 ( )하였더니” (Remember the Lord your God): 구약에서, 이스라엘 백성에게,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(예, 신명기 8:18).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들에 많이 나오는 말이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이다.

10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,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 냈다.

- 주님께서 명하셨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, 영어성경에는 “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( )하셨다 (spoke to the fish).”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반발하였지만, 물고기는 아무런 저항없이 따릅니다. 불순종은 아마도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닌지?
-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다. 뱉어낸다는 말은 ( ) 느낌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. 이어지는 3 장이후의 이야기에서,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요나의 마음 상태에 대한 암시를 준다.